

한국당, 도 넘은 막말로 성희롱·지역감정 조장

김정재 “조국, 꽃 보며 자위나 하라”
민주당 “명백한 성희롱·인격모독”

나경원 “광주일고 정권, PK 차별”
“지역주의 망령 소환 고질적 망언”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비상식적 발언과 행동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민생국회를 외면하고 장외로 또다시 나가더니 이번에는 성희롱 발언과 지역감정 조장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달 24일 3개월 만에 장외투쟁에 들어가더니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31일엔 서울에서 대형집회를 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상태에서 인사 청문회보다는 장외에서 공격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국회에는 각종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어 국회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올해 내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또다시 드러난 조국의 위선, 더 이상 국민 우롱 말고 사무실의 꽃보며 자위(自慰)나 하시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 앞에서는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삶을 되돌아보겠다’며 침통한 표정으로 동정을 호소하면서도, 뒤돌아서서는 지지자들의 꽃 몇 송이를 떠올리며 함박웃음 짓는 조국이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중의적 표현이지만, 문장의 맥락상 이는 명백히 조 후보자를 조롱하고, 성적 희롱하는 표현이며 국민을 모욕하는 발언”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정권 규탄 집회에서 “문재인 정권은 ‘광주일고 정권’이라는 말이 있다. 이 정권 들어서 부산, 울산, 경남 정말 차별하고 있다”며 “이 정권이 부울경 쪽에 인재를 등용하는가 봤더니, 간단한 통계만 봐도 서울 구청장이 25명 중 24명이 민주당인데 그중에서 20명이 광주, 전

남, 전북이더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노골적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한 것으로 영남 민심을 자극하려는 시도로 해석됐다. 무엇보다 사실 관계가 전혀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현재 문재인 정부 내각에 이낙연 국무총리 외에 광주일고 출신은 한 명도 없다. 더욱이 현 정부 내각과 청와대에는 부산·경남 인사들이 즐비하다. 그런데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감정 조장을 위해 호남의 한 명문학교인 ‘광주일고’를 내세워 역지를 부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주의 망령’을 되살리려 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또한 차별적 ‘인재 등용’의 근거로 든 서울시 구청장은 모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인사들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기자회견을 하고 “지역감정, 가짜뉴스, 성희롱은 한국당의 3대 막말 고질병”이라며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구태”라고 질타했다. 또 “부산에 가서 ‘광주일고 정권’이라고 주장한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며 “구청장들에 지역감정을 덧씌우는 행위는 서울시민 모독이고 우리 국민에 대한 치명적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1야당이 이런 수준이라면 국가적으로도 비극이다. 지역주의, 광주민주화운동, 북한(색깔론) 문제는 한국사회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른 끝에 법적·역사적으로 논란을 마감한 사안들로 심지어 한국당의 앞선 인사들조차 엄청난 과오 끝에 스스로 조심하고 넘어설려 하지 않던, 금도”라고 강조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의 페이스북에 “역사 박물관에 봉인된 지역감정을 스스럼없이 소환해 민심을 선동하는 악랄하고 파렴치한 짓”이라며 서울 시민과 호남지역민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대안정치연대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나 원내대표의 망언을 좌시해서 안된다”면서 “PK정서를 자극하기 위해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건드렸으니 그 죄질은 내란죄에 준한다”고 주장했다.

유대홍기자 ydy2132@srb.co.kr



‘2019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을 몇새 앞둔 1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작품설치가 한창이다. 디자인비엔날레는 ‘휴머니티’(HUMANITY:Human+Community)를 주제로 오는 7일부터 10월31일까지 55일간의 일정으로 광주 전역에서 열린다.

임정욱기자 joi5605@srb.co.kr

오늘 전두환씨 형사재판에 조영대 신부 증인 출석

고 조비오 신부 조가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88)씨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전씨 재판은 2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전씨는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재판에는 조영대 신부 외에 학계 관계자, 당시 육군 항공대 소속 군인 등이 함께 출석해 39년 전 헬기 사격의 실체를 증언한다.

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2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 아래 전씨 형사재판이 진행된다.

법정에는 검찰 측이 신청한 사실상의 감정증인이 출석한다. 5·18을 연구해 온 교수 1명과 1980년 5월 육군 항공대에서 탄약을 관리했던 군인 등이 대상이다. 특히 이 사건 고소인 중 1명인 조영대 신부도 법정에서 나와 당시 고 조비오 신부의 행적과 발언, 교구 상황 등을 진술한다.

지난 재판에서 거론됐던 전일빌딩 탄흔 감식국과수 감정관은 이번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는다. 대신 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헬기 사격과 관련된 사실조회서에 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등지 55일간
1천130여명 참여 600개 작품 선보

‘휴머니티(HUMANITY)’를 주제로 한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이번주 개막한다.

▶관련기사 15면

(재)광주디자인센터에 따르면 광주시가 주최하고 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2019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오는 7일부터 10월31일까지 55일간의 일정으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디자인센터 등지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재)광주디자인센터는 오는 6일 저녁 7시에 비엔날레 전시관 광장 일원에서 ‘2019광주디자인비엔날레’ 공식 개막식을 갖는다. 또 공식 개막에 앞서 6일 오전 광주비엔날레전시관 1층 거시기홀에서 국내외 기자단 1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프레스오픈 행사를 하고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 담양 죽녹원과 미암미술관, 해동문화예술촌 등을 둘러보는 팸투어도 진행한다.

올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국내외의 50여개 국작가 1천130여명이 참여해 600여개의 다채로운 디자인 작품을 선보인다. 참여기업도 120여곳에 이른다.

주제관, 국제관 등 본전시와 특별전, 지역산업전, 국제학술행사, 시민참여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 운영된다.

주제관에서는 ‘사람을 노래하다(Humanity and Design)’를 주제로 디자인이 인류의 사회, 경제, 산업의 변화에 미친 영향력과 미래의 디자인 변화 방향과 활용성을 조명한다.

또 국제관은 ‘다음 세대에 주는 선물(Humanity for Next Generation)’을 주제로 현대 디자인의 출발점이었던 바우하우스 창립 100주년과 연계해 인간 중심 디자인의 근본가치와 기원이 지난 100년간 지속 가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제시한다.

기업관은 ‘사람, 사람들을 위한 기술(Humanity by New Technology)’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미래 기술이 인간애를 실현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인간을 위한 디자인과 기술의 발전방향은 무엇인지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별전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들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국제 포스터 전시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올해 주제에 부합하는 ‘휴머니티’ 전시를 극대화하고, 국내 디자인을 세계에 알리는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위성호 광주디자인센터장은 “‘휴머니티’를 주제로 한 2019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오는 7일부터 55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며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상생과 배려를 통해 휴머니티를 실현하는 디자인의 담론을 분석하고 미래 디자인의 변화 방향성 등을 다양하게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욱기자 okkim@srb.co.kr

광주·전남, 가을 장마

3일(화)	4일(수)	5일(목)	6일(금)	7일(토)	8일(일)

www.seoyeong.ac.kr



2020학년도
서영대학교 신입생모집
2019. 9. 6(금)09:00 ~ 9. 27(금)18:00

- 2년제 학과** 항공비서과(신설), 생명화학공과(신설), 자동차과, 소프트웨어융합과, 전기과, 소방행정과, 사회복지과(주/야), 호텔조리제빵과, 뷰티미용과
- 3년제 학과** 보건행정과, 물리치료과, 치위생과, 임상병리과, 응급구조과
- 4년제 학과** 간호학과

※인터넷접수 : 유웨이어플라이, 진학어플라이



서영대학교

61268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 1
☎ 입학상담 : (062)520-5008~9, (062)515-5012~3

SEOYEONG
university

